



이차전지 기업, 완주에 공장 증설

에너지에버테라솔루션, 테크노밸리2산단에 1125억원 투자... 2021년 대규모 협약 이후로 추가 협약 체결

지난 2021년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대규모(1,276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전문 기업인 에너지에버테라솔루션(주)이 완주2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증설투자에 나서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와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주), 에너지에버테라솔루션(주)은 지난달 31일 완주군청에서 2023년 4월까지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완주2공장 건설 및 추가 부지매입을 골자로 1,12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에너지에버테라솔루션(주)의 부지는 기존 3만 2,674㎡(9,900평)에 추가로 매입한 9,920㎡(3,006평)를 포함해 총 4만 2,594㎡(1만2,900평)로 늘어난다.

투자 금액도 종전의 1,276억원에서 이번에 1,125억원을 포함해 총 2,401억원으로 증가한다.

전북도와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투자기업은 공장건축과 인력교육 등에 있어 도내 기업과 인력을 활용하고 채용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번 증설투자는 분리막 생산을 위한 것으로, 2등 공장에 분리막 생산라인 2개와 코팅라인 6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장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이며, 추가 부지매입으로 직원 복지시설, 지원시설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기존 투자로 100여 명의 고용창출에 이어 70명을 추가 고



2023년 4월 31일 완주군청에서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신상기 에너지에버테라솔루션(주) 대표 등 참석자들이 2023년 4월까지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완주2공장 건설 및 추가 부지매입을 골자로 1,12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상기 에너지에버테라솔루션(주) 대표는 "전북도와 완주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단기간 내에 2공장을 짓게 되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완주공장은 직원들의 도전과 열정, 신념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꿈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내 3대 이차전지 분리막 기업의 대규모 증설투자를 통해 관련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세계화가 완주군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도는 기업들의 성장축진을 위해 각종 보조금과 투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에너지에버테라솔루션(주)을 포함한 도내 기업들이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에버테라솔루션(주)은 지난해 11월 완주 1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차전지 분리막 필름 생산에 들어갔다. 이곳 시설은 분리막 생산라인 2개와 코팅라인 4개를 갖췄으며, 기존의 분리막 코팅 사업에 이어 분리막 생산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분리막 생산을 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성장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김재훈 기자

잠버리 부지 침수예방대책 전북도, 이달부터 본격 시행

기존 내부소배수로 공사 외 추가 강제배수대책 추진

전북도가 지난 5월초 어린이날 연휴와 최근 부처님오신날 연휴 기간 중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잠버리 부지가 침수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침수예방대책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북도는 먼저 조직위원회와 합동으로 행정안전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침수원인을 분석했다.

잠버리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매입 당시 행사목적(아닌) 농지조성 목적으로 농지기준의 배수계획을 적용하면서 부지내 구배(기울기)가 거의 없고 면적이 넓어 배수시간이 지체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여기에 기 설치한 외곽배수로의 기능저하 및 내부소배수로 미설치 등을 침수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잠버리 개척 이전까지 외곽배수로 정비 및 내부소배수로를 설치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에 따라 서브캠프내 저류지를 설치해 펌프로 강제배수하는 추가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시행계획에 따라 배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외곽배수로의 정비와 함께 조사로 사제 및 잠버리 기간중 새만금호 수위관리를 통해 호우시 잠버리 부지 침수예방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현재 외곽배수로 정비공사를 착공해 정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조사로 사제도 완료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에서는 텐트 주변 소배수로 설치 및 침수가 예상되는 텐트 대 상 퍼레트 배부, 이동용 간이 준설차 운용, 서브캠프내 차량이동 지원을 위한 쇄석포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서브캠프내 30mX40m 간격의 내부소배수로 설치와 잠버리 부지의 구조적 문제인 배수지연 해소를 위해 마련한 추가배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초 내부소배수로 공사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배수대책은 강유변도 및 최근 3년간 8월 평균 강우량 등을 반영해 각 서브캠프내 15.5mX15.5m 규모의 저류지 100개소를 설치하고 빗물을 펌프로 강제배수 한다는 계획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규모와 위치 등을 결정했고 이달 5일 경부터 착수에 장마이전인 이달 말까지 설치완료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강제배수대책 추진에 소요될 추가예산은 공사기간 및 장마철 도래에 따라 사업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공사추진과 함께 조직위원회와 협조해 국가예산 확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계기관별로 계획된 내·외곽 배수로 시설을 완료하고 추가 강제배수시설까지 설치가 마무리되면 침수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사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수시설을 보완해서 전북도에서 개최되는 국가행사인 세계잠버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제13회 그린웨이 환경축제가 탄소중립을 위해 지구력을 모으자'를 주제로 오는 9일 전북도청 야외광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환경정보 제공과 재미있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탄소중립 향한 도전... 3일 '그린웨이 환경축제' 개최

전북도청 야외광장 일원에서... 환경체험 프로그램 '다채'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기획, 포스터 등 홍보물 최소화

행사 당일 공식 프로그램은 △전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언식', △삼천의 생태 이야

기를 듣는 '수달가족 삼천나들이', △이색적인 채식 요리를 선보이는 '토요채식', △탄소중립 실천활동 우

수아이디어를 이야기 나누는 '지구력 해커톤', △바꾸고 나눠 또 쓰고 또 쓰는 '포포시장', △버려진 장난감으로 제작된 '정크아트 전시' 및 도내 청년예술가들의 '지구콘서트' 공연 등이다. 또한, 도내 친환경 저탄소 제품 소

개 및 커피박 클레이아트 체험, 페플라스틱·폐의류를 활용한 액세서리 만들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식물심기 등 친환경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50여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더불어 일회용품 없는 환경축제로 기획해 포스터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최소화했다. 플라스틱 없는 전북 만들기, 신묘한 자판기, 지구력 플로

깁 등 사전 프로그램도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한층 높이고자 했다.

특히 직접 경험하는 재미와 지구를 지키자는 의미를 결합해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사항을 염두에둔 포인트가 쌓여 축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과 차별화된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